

전남 서부권

전북 양식시스템 확 바꾼다

수산과학원, 태풍 등 견딜수 있게 시설 개선하고 계량화 착수

국립 수산과학원은 전북 양식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양식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현재 전북 양식시설은 태풍에 쉽게 부서지고 시설 규모가 작아 전복 폐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고쳐 태풍 등 물리적 충격에도 견고하고 건강한 전복을 키우고자 환경, 양식, 시설 전문가 16명이 올해부터 3년간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연구팀은 전복 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식장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대형 태풍 등 해양환경의 강한 물리적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연구 등을 수행한다.

연구팀은 향후 연구방향 수립을 위해 지난 6~7일 양일간 전북양식의 주산지인 완도에서 전북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양식시설 현



완도지역 전복양식 어민들이 미역·다시마 등 전복 먹이감을 양식장에 넣고 있다.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중 81%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장 조사를 벌였다.

수산과학원 차봉진 박사는 “수출 10대 전략품목인 전복의 생산성 향상과 양식시설 표준화 연구에 집중해 어업인의 어업경비 절감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수산물의 전국대비 생산량은 전복 81%를 비롯해 ▲다시마 70% ▲꽃 60% ▲미역 46% ▲매생이 40% ▲전복 종묘생산 30% ▲양식 20% ▲김 15%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 ~ 제주, 흥도 등 서남권

여객선 운임 평균 9.7% 인상

목포~제주, 흥도 등 서남권 주요 관광 항로 여객선 운임이 평균 9.7% 인상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목포~제주 등 20개 항로를 취항하는 20개 선사 47척의 연안 여객선 운임인상 신고를 10% 내외에서 수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유가 폭등으로 10% 내외로 운임이 오른 지 3년 4개월 만이다. 이는 여객선사가 지속적인 국제 유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30% 내외의 운임 인상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목포~제주항로는 2만 5천500원(카페리 3등 객실 기준)에서 2만8500원으로, 목포~흥도 간 초쾌속선 3만 6800원에서 4만500원으로, 완도~청산 차도선 6500원에서 7000원으로

평균 9.7% 올랐다. 전체적으로는 여객 운임이 10%, 차량 운임 7.5% 인상됐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정부의 운임지원 정책에 따라 최고 5000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이유객이 많은 항로의 신안 비금, 도초, 흥도, 흑산, 하의, 장산 등에 사는 주민은 이번 운임 인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운임이 5000원 이하인 목포 외달도, 신안 병풍도, 임자도 등 단거리 항로는 항로별로 인상 폭이 적용된다.

박성복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사에서 운임 인상을 너무 낮게 조정한다는 불만이 많지만, 지속적인 협의의 조정을 통해 평균 10% 수준에서 운임인상 신고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컬러 토마토 수확 한창 해남읍 비닐하우스에서 주민이 대추모양의 '컬러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난 이 토마토는 5~6월까지 수확한다. (해남군 제공)

목포 해양문화축제 시민참여 체험형 축제

시, 20일까지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공모

올해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전통 해양문화와 해양레저를 연계한 시민·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로 치러진다.

목포시는 그동안 해양문화축제의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5만 목포시민들과 시 산하 110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광객 참여체험 프로그램 공모에 나섰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해양문화의 테마를 부각시키고 목포 특성을 살리

는 주제를 대폭 개발해 선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모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최우수상·우수상·최다 제안상 등 30여 명이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양문화축제를 알리고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축제만 큼은 철저하게 시민위주 행사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축제를 위해 총 3억원

의 예산을 들여 ‘춤추는 바다분수’ 시설도 대폭 보강기로 했다.

그동안 분수의 분사높이가 70m·30m·20m 등 3종류밖에 없어 단조롭다는 여론에 따라 20m 73대를 5m, 10m, 15m 3종류로 세분화시켜 다양한 물높이를 연출해 ‘춤추는 분수’로 색을 입히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 전송장치와 레이저 시설도 보강해 더욱 더 화려한 레이저 쇼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함평천지 난향에 취해보세요

내달 24~25일 난 축제

‘2012 대한민국 난(蘭) 명품 대제전’이 다음달 24~25일까지 이틀간 함평군 함평읍 엑스포공원에서 열린다.

함평군 주최·함평난연합회(회장 양년일)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제전은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출품기준은 1년 이상 배양된 한국춘란으로 합식되지 않은 성

숙 3축 이상 작품이어야 하며, 화예품은 꽃대가 2대 이상 작품이어야 한다.

참가 및 출품은 국내의 난 단체나 개인이면 누구나 참가 및 출품을 할 수 있고 23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총 120여 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서부취재본부=황은혁기자 hwang@

목포시 노인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목포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목포시는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1927여 원을 투입해 총 21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시 전체 노인의 80% 수준인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단 교육형·시장형은 60세 이상 일반노인 참여가능) 가운데 건강한 노인이다.

근무조건은 7개월간 1일 3시간, 주 3일 근무로 1인당 월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모집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이며,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선발기준 점수와 면접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 선발, 3월 초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정종득 시장은 “올해는 웰빙공원 가꾸기와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네트워크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기 등 지난해보다 6개 사업이 늘어나 28개 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추진 탄력

철탐 반대 주민들 소송서 패소... 한전 “연말까지 완공”

수년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송전선로(30.3km)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4일 철탐 방식의 송전선로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에 대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보상금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들이 전북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와 한전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도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한전측은 “그동안 재판을 이유로 다소 부진했던 구간에 대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중부건설단 전북건설팀의 김왕주 팀장은 “육구와 회현 등 공사가 지연된 구간에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송전선로와 새만금변전소 건립을 끝내고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45%에 머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전은 선로가 지나갈 45개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23개 마을과는 영농사업, 소득증대, 공공시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마을과도 꾸준히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그동안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철탐의 수를 92개에서 89개로 줄이고 노선도 만경강변으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토주지와 마을 주민들은 2009년 12월 한전이 낸 송전선로와 철탐 건설안을 군산시가 승인하자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농촌 노인들도 인터넷 열풍 원주군 고산면 노인들이 면사무소에 마련된 컴퓨터교육실에서 인터넷을 배우고 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사이버 소꿉물을 운영하려는 농민이 늘면서 농민들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여수엑스포 연계 관광객 유치

전북도는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여수엑스포와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를 한류의 보고장인 전복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규모 수확여행단 유치, K-POP 스타 등 한류 열풍 활용, 여수 엑스포와 연계해 예년보다 500만명 많은 관광객을 올해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관광객은 6300만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8900여억원이었다.

특히 국제행사도 관심도가 높은 여수엑스포와 공동 홍보, 관광지 연계 등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여수 엑스포 조직위 홈페이지에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도내 숙박 시설·음식점·쇼핑시설 등 총 71개소를 지정업소로 선정하는 등 엑스포 관광객이 전복을 거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원자력, 고강도 풍력발전기 날개 개발

방사선을 쬐어 강도를 높인 소형 풍력발전기 날개 개발 정읍에서 개발됐다.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강필현 박사팀은 섬유 복합소재의 풍력발전기 날개에 방사선의 일종인 전자선을 조사, 에너지 전달 능력을 높여 하루 넘게 걸리던 경화(硬化)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했다.

연구진은 경화시간을 줄여 생산비용을 35% 절감시키고, 압축강도를

90%나 높여 발전기 날개의 변형과 균열위험을 줄였다.

강필현 박사는 “새 기술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위한 소형 풍력발전기(10KW급)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선 조사기술을 기업에 이전, 섬유 복합소재와 탄소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

서부산림청, 사유림 5600ha 사들인다

서부 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사업비 314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5600ha의 사유림을 사들인다.

서부 지방산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매수 목표의 70% 이상을 집중 매수할 방침이다. 대상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어려운 산림과 국유림 경영에 적합한 산림 등이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금액으로 책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est.forest.go.kr)나 담당관 리소(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에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매수해 현재 11%에 머문 국유림 비율을 오는 205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

순창군수, 日서 농·특산물 판촉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황 군수는 지난 13일부터 16일 까지 3박4일간 농특산물 생산, 유통관련 담당직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황군수 일행은 도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도시 아이치현을 비롯해 요코테시, 후가이도 식품산업협회 등을 찾아 농업기반을 유지하고 농업과 주민, 행정의 공존을 강조하는 조직농업 사례와 농업이 주도하는 지역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사례를 견학했다.

황군수 일행은 도요타 자동차를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전주시 불법 주차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전주시는 내달부터 불법 주차차 단속시 사전에 단속차량임을 예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지역에 주차한 경우 경고와 함께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문자를 받은 소유자가 5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불법 주차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 불법 주차차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해 제공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오식도 철제 화포 근대 역사박물관 전시

군산시는 오식도에 설치됐던 철제 화포(길이 127.7cm·중량 125kg)를 국립 진주 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아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에 전시한다.

이 화포는 고군산에 출몰하는 이양선을 방어하고자 1871년(고종 8년) 군산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91년 오식도에서

우연히 길을 가던 고물장수의 눈에 띄어 신고되면서 발견됐다.

정준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장은 “오식도 화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화포 제작방식과 달리 화포 포구쪽이 본체보다 좁아지는 개량된 형태의 제작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한우 암소 감축에 4억4300만원 지원

김제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4억4300만원을 확보해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 한우 암소 1476마리를 감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9일까지 전주김제완주 축협 김제지점을 통해 희망농가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암소는 ▲저능력 소(의모심사 부적합·2등급 이하 수소를 낳은 암소 등) ▲계약일 사업을 추진, 한우 암소 기준 12~18개월령의 마분만 소 19~45개월령의 분만 소로 올해 말까지 출하할 경우 마리당 30~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순창군 수요자 중심 민원 단축 처리제 운영

순창군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유기 민원 단축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이 지난 한해동안 3일 이상 유기민원 운영결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총 7306건의 법정처리 기간

인 6만9793일보다 3만7268일이나 빠르게 처리해 법정기간 대비 53%를 단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각 부서와 읍·면별 전년 대비 15% 이상 단축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